

# 40년 전통 '돈 보스코 농구대회' 만남과 나눔 정신 계승

### 코로나19로 4년 만에 살레시오 중·고 체육관서 12~14일 열려 광주·전남 유일 5대 5 청소년대회로 중·고등부 32개 팀 출전

오는 12~14일 살레시오 중·고 체육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돈 보스코 농구대회가 열린다. 돈 보스코 농구 대회는 광주·전남 지역의 유일한 청소년만을 위한 5·5 농구 대회다. 팀스포츠를 통한 만남과 나눔의 정신을 청소년들에게 전하고자 미국 출신 선교사 살레시오 수도회 고(故) 노승피(로베르트) 신부와 몽골 선교사 이호열 신부에 의해 창설됐다. 1984년부터 열려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돈 보스코 농구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열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4년 만에 개최된다. 참가 대상은 남자 중·고등학생과 이에 해당하는 나이의 청소년 중 대한민국농구협회에 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아마추어 선수들이다.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배우고 우정을 돈

독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돈 보스코 농구 대회는 2020년 대회를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중단됐었다. 2022년에는 대회를 최초로 만든 노승피 신부가 선종하고, 봉사자 신청 및 후원 등이 끊기면서 대회 폐지가 고려되기도 했다. 하지만 살레시오회는 돈 보스코 농구대회 40주년이자 살레시오회 한국 진출 70주년을 맞은 올해 다시 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며, 그동안 이어져 왔던 청소년들의 요청과 기대에 화답했다. 운영 회원 및 협찬 감소 등 여전히 어려운 여건이지만 본 농구대회가 가진 '만남'과 '나눔'의 가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청소년들은 대회의 재개에 크게 호응했다. 지난

해 10월 25일부터 약 두 달 간 진행된 대회 참가 신청에서는, 신청 시작 2주 만에 접수가 모두 마감되고 대기팀까지 생겼다. 대회에는 중등부(사비오부) 16개 팀, 고등부(보스코부) 16개 팀 등 총 32개 팀이 출전해 그간 다져온 팀워크를 보여줄 예정이다. 대회 첫날인 12일에는 개회식과 1일차 예선이 진행되며 13일에는 2일차 예선, 14일에는 본선 경기가 열린다. 시상식과 폐회식은 대회 마지막 날 진행된다. 시상은 팀별로 우수, 준우수, 3위까지 이뤄지며 개인별로는 MVP(최우수 선수상), 페어플레이상 그리고 3점 슛 대회를 통한 이벤트상이 주어진다. 대회 운영장 정민수(모세) 수사는 "이번 제56회 돈보스코 농구대회가 청소년에게 농구라는 팀 스포츠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자신이 가진 열정, 기쁨, 사랑 등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지난 2020년에 열린 '제56회 돈 보스코 농구대회' 결승전 경기 모습. <농구팀 BROS 제공>

## LPGA 신인왕 유해란 "올해 목표는 메이저 킴"

### 12일 미국으로 출발 대회 참가

"제가 메이저 대회와는 인연이 없었는데 올해는 우승하고 싶습니다." 2023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신인왕에 오르며 화려한 한 해를 보낸 영암 출신 유해란이 올해는 메이저 대회 우승에 욕심을 드러냈다. 유해란은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테일러메이드 신제품 발표 행사에 참석해 새해 목표를 밝혔다. 이 행사에는 테일러메이드 클럽 계약을 맺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임희정과 김수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의 정찬민이 함께 참석해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작년 LPGA 투어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유해란은 "올해도 한 번 더 우승하고 싶고 기왕이면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다"며 "오는 12일 미국으로 출발해 LPGA 투어 미국 2개 대회를 마치고 태국, 싱가포르 대회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LPGA 투어 통산 5승의 임희정은 "내 장점이 꾸준함이었지만 작년에는 부상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올해 비거리도 10m가량 늘어 파5홀에서 버디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가을에 열리는 메이저 대회에서 유독 많은 우승을 차지한 김수지는 "작년에는 우승이 없었지만 평균 타수 등 기록 면에서는 오히려 좋아졌다. 좋아



진 기록이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KPGA 투어의 장타자 정찬민은 "작년에 잔 부상이 많아 올해는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했다. 아시안투어 등 대회 일정상 장거리를 뛰게 됐는데 체력 훈련을 열심히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작년에 LIV 프로모션 대회에도 출전했던 정찬민은 "PGA 투어만큼이나 선수들이 실력이 좋아 압박을 받았다"며 좋은 경험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지난해부터 수업을 기르기 시작한 이정은은 "수업이 트레이드마크가 된 정찬민은 '수업을 기르고 2승이나 했으니 다른 일이 없는 한 계속 기를 것'이라며 웃음을 지었다. /연합뉴스

## 박세리 LPGA 대회 열린다



### '피 힐스 세리 박 챔피언십' 3월 21~24일 선수 144명 출전

오는 3월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박세리 골프대회의 타이틀 스폰서와 공식 명칭이 확정됐다. LPGA 투어는 10일 '한국여자골프의 전설' 박세리의 이름을 딴 골프 대회의 타이틀 스폰서가 투

자회사인 피 힐스로 결정됐으며 공식 대회 이름은 '피 힐스 세리 박 챔피언십'이라고 발표했다. 이 대회는 현지 시간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팔로스 버디스 골프 클럽에서 열린다. 총상금은 200만 달러(약 26억4000만원)이고 144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이 대회는 작년에 디오 임플란트 LA오픈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는데 올해는 박세리가 대회 호스트를 맡는다. 박세리는 "대회 호스트로서 LPGA 투어에 돌아오게 돼 영광"이라며 "다음 골프 세대에게 조언하고 내가 사랑한 골프를 돌려주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 Maum 박세리 월드매치에서 박세리가 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SK, 막강한 수비 농구로 12연승 질주



9일 경남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정규리그 창원 LG 세이커스와 서울 SK 나이츠의 경기. SK 김선형이 드리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연승 기간 실점 70점 미만 주축 부진 속 '수비팀'으로 변모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9일까지 프로농구 SK는 12경기를 치렀다. 12경기에서 SK는 평균 80.1점을 득점했다. 주목받을 수치는 아니다. 이 기간 프로농구 10팀 평균(81.8점)보다 떨어졌다. 1위 원주 DB(90.2점)와 차이는 10점이 넘는다. 그런데도 SK는 12연승을 달렸다. 10승 8패였던 성적은 22승 8패가 돼 2위로 올라섰다. 3위 수원 kt(19승 11패)와 격차를 어느새 3경기로 벌렸다. 또 DB(25승 6패)를 2경기 차로 추격해 선두 탈환도 내다볼 수 있게 됐다. SK 상승세의 비결은 수비력이다. 연승 기간 SK는 평균 실점을 69.2점으로 억제했다. 70점 이하 실점을 기록한 팀은 SK뿐이었다. 창원 LG가 79점을 실점해 뒤를 이었다. SK보다 약 10점을 더 내준 것이다. 12경기에서 SK를 상대한 팀들은 평균적으로 필드골 성공률이 38%까지 떨어졌다. 무엇보다 상대 3점 성공률을 27.6%까지 낮춘 외곽 수비력이 돋보였다. /연합뉴스

최원혁 감독은 지난 5일 고양 소노를 87-61로 꺾고 10연승을 확정짓고 후 "방패로 때리고 다니는 SK"라고 흡족해했다. 이 경기에서 소노는 SK의 압박 수비에 3점 37개를 던졌으나 29개를 놓쳤다. 외곽 수비가 강해진 건 최근 최원혁의 출전 시간이 늘었기 때문이다. 최원혁은 대인 수비와 팀 수비 모두 뛰어난 선수로 평가받지만, 공격력은 약점으로 꼽힌다. 개막 후 지난해 12월 12일 DB전까지 평균 18분 가장 먼 최원혁은 12연승 기간에는 26분이나 코트를 누볐다. 가드 포지션인데도 26분 만에 4.1리바운드를 챙기고 1.4스텝까지 보태며 SK의 수비를 이끌었다. 최원혁이 코트에 나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출전 시간이 줄어든 선수는 SK의 간판이자 지난 시즌 정규리그 최우수선수 김선형이다. '물결대장' 김선형의 위력이 지난 시즌보다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전 감독이 공격보다 수비에 힘을 주고 시즌을 운영한다는 방증이다. 야심 차게 영입한 빅맨 오세근마저 공격력이 무뎠다. 프로농구 최고 가드-빅맨으로 꼽히던 듀오가 기대했던 공격력을 뽐내지 못하지만 '수비'를 우선순위로 두고 팀 전략을 전환한 전 감독의 선택이 주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외계+인 2부
2관	위시
3관	서울의 봄
4관	외계+인 2부
5관	노랑: 죽음의 바다, 림세의 세계
6관	위시, 노랑: 죽음의 바다, 길위에 김대중
9관	노랑: 죽음의 바다, 스페의 문단속: 다녀왔어, 신치원 쟁구는 못말려 더 무비 초능력 대결전 - 날아라 수제김밥-
7관 씨네가름	림세의 세계, 스페의 문단속: 다녀왔어, 아무어맨과 로스트 킹덤
8관 씨네가름	스즈메의 문단속: 다녀왔어, 인투 더 월드, 메이킹 다큐멘터리 '스즈메의 문단속'을 따라가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 COURT SIDE in Theaterz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 신년음악회 Festival**

광주시립교향악단 380회 정기연주회  
2024 신년음악회 Festival  
일시: 2024-01-16(화) ~ 2024-01-17(수) 19:30  
장소: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062-613-8241

**정승희 개인전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한 순간>**

일시: 2024-01-17(수) ~ 2024-02-18(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062-613-8357